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 공관복음의 학문적 영성적 읽기를 통해서
10월 10일 강의 계획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

- 마르코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동경로
 - 9장 30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래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 10장 1절 (“예수님께서 ...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 10장 32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 10장 46절 (“그들은 예리코에 들어갔다.”)
 -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 산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 11장 11절 (“이윽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주님께서 벳파게에서 새끼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 가심(성지주일)

그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 산의 근처 벳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마르 11,1-4)

1. “예루살렘 곧 올리브 산”
2. 벳파게에서 어린 나귀를 갖고 오라 명하심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 벳파게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매여 있는
암나귀와 그 결의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마태 21,1-2)

3. 당시 나귀를 빌린다는 것은 자동차를 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4.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5. 예수님은 공생활 중 유다 땅에 몇 차례 올라오셨다

(1) "몇 번이나 내가 네 자식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너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마태 23,37)

(2) 예수님이 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마리아, 마르타, 라자로의 집에서 보내심

(3)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산헤드린 멤버인 니코데모와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냄

(4) 성령 강림일에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함

6. 예수님께서서는 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가?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
하시어 암나귀 곧 짐바리 짐승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마태 21,3-4)

(1) 당신이 즈카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자

(2) 평화의 왕이신 알려주고자

(3) 겸손과 온유의 왕이심을 알려주고자

7. 제자들과 군중의 반응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겹옷
을 엮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
의 겹옷을 길에 깔았다. ... 그리고 앞서 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
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마르 11,7-10)

(1) 군중(순례자들)이 겹옷을 벗어 예수님 나아가는 길에 깔 이유

그들은 재빨리 겹옷을 벗어 돌층계에 깔고는 예후를 그 위에 모시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 되셨다!'하고 외쳤다(2열왕 9,13).

(2) 군중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

축제를 지내러 온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외쳤다.
(요한 12,13)

(3) 순례자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자리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과
군중은 ... 가슴 벅차도록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
였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이 복되시어라.”
(루카 19,37-38)

(4) 순례자들의 “호산나” 외침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

“호산나! ...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금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윽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마르 11,9-11)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다음부터의 사건들(성주간 사건들)

0. 예수님 생애 최후의 한 주간

1. 복음서(마르코)의 성주간 날짜별 보도

일 “이윽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마르 11,11) ☞ **성지주일**

월 “이튿날 예수님께서” (마르 11,12) 베타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이들
을 내쫓으셨다. 다시금 베타니아로 돌아가시어 그곳에서 밤을 보내
셨다. ☞ **성주간 월요일**

화 “이른 아침에”(마르 11,20)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유다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베타니아로 돌아오시는 길에 성전
파괴를 선언하셨다. ☞ **성주간 화요일**

수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마르 14,1) 예수님께서 하루종일
베타니아에 머무시는 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다.
그리고 이 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한다.

☞ **성주간 수요일**

목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마르 14,12) 예수님이 두
제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어 파스카 음식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신

다. 저녁 시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드신다. 그 날 밤에 예수님께서서는 겐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병사들에게 붙들리시고, 대사제 앞에서 심문을 받으신다.

☞ **성주간 목요일**

금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마르 15,1)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진다. ☞ **성주간 금요일**

토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마르 15,42)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누여져 있다. ☞ **성주간 토요일**

일 “안식일이 지나자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마르 16,1-2)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한다.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발현을 목격한다. ☞ **부활 대축일**

2. 복음서(마르코)의 성 금요일 시간별 보도

- 금요일 오전 6시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마르 15,1)
- 금요일 오전 9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아홉 시였다.(마르 15,25)
- 금요일 정오 “낮 열두 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시까지 계속되었다”(마르 15,33)
- 금요일 오후 3시 “오후 세 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마르 15,34)
- 금요일 오후 6시 “이미 저녁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마르 15,42)

성전정화 사건(성주간 월요일)

이윽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이튿날 ...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마르 11,11-15)

(1)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교에서 차지하고 있던 중대한 역할

- ① 하느님이 머물러 계시는 유일한 장소
- ② 희생제사가 이뤄지는 유일한 장소
- ③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장소

→ 기원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당시...

◆ 누구든지 성전을 모독하면 처벌되었다

(2) 성전의 구조

- ① 외부 성벽과 내부 성벽
- ②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사제의 뜰, 그리고 지성소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타니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허기지셨다. 마침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달린 것을 보시고는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열렸을까 싶어 다가갔었다. 정작 그리로 가셨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하긴 무화과 철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는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네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엎으셨다. 또한 누구든 성전을 가로질러 기물을 나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가르치셨으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마르 11,12-17)

1.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 (1)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 (2)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저주는 행동화된 비유 또는 예언적 행동이다
- (3) 샌드위치 기사배열

2. 성전정화 사건에 대한 세부적 이해

- (1) 성전 이방인의 뜰에 환전상들과 환전탁자가 있었던 이유

인구 조사를 받는 이는 누구나 성소 세켈로 반 세켈을 내야 한다. 그 반 세켈은 주님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스무 살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주님에게 예물을 올려야 한다.(탈출 30,13-14)

- (2)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들을 팔고 샀던 이유
- (3) 성경을 제대로 그리고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 ① 성전정화 사건에 대한 필자의 무지
 - ② 성전정화 사건에 대한 히틀러의 악용

3. 성전정화라는 말이 맞는 표현인가?

- (1) <성전 파멸에 대한 예고> 또는 <성전 심판에 대한 예고>가 더 맞는 표현이다
“너는 이 웅장한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마르 13,2).
- (2) 70년 하느님의 성전이 파괴된 다음부터 현재까지 하느님의 성전은 없는가?